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6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브라질 경제회복으로 항만 물동량 증가 .....	2
□ 아르헨티나 산타페(Santa Fe) 내륙 항만, 현대화 개발 8월 입찰 예정 .....	4
□ APL Logistics, Sumitomo Warehouse와 전략적 제휴 .....	5
□ 중국정부 서부지역 철도증설에 1조 5천억위안 투자 .....	6

## □ 브라질 경제회복으로 항만 물동량 증가

- 브라질 경제는 올해 들어 경제 성장 전망치를 6.5%(기존 5.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도 크게 증가
  -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달성
  - Centronave(외국적선주협회)와 브라질 컨설팅 업체인 Datamar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수입 물동량은 70만TEU임 (지난해 동기 40만TEU)
  - 톤 단위로는 지난해 560만톤에서 올해 900만톤으로 크게 증가
- 외국적선주협회 대표인 Elias Gedeon에 의하면, 현재 브라질 항만의 시설부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수입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형 선박 입항을 위해 처리능력 확보와 준설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힘
  - 현재 브라질 항만에 기항하는 정기선은 평균적으로 3,200TEU급 규모 (2008년 2,800TEU, 2005년 2,200TEU)
  - 항만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준설 프로그램 추진 필요
- 2010년 2월 2일에 브라질 항만청 장관 Pedro Brito는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브라질 최대 항만인 산토스항의 시설을 15년 내에 지금보다 3배 확대 필요성 밝힘
  - Brito 장관은 2024년에는 물동량 처리능력이 현재의 연간 300만TEU에서 900만TEU로 증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산토스항을 브라질의 허브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또한, 산토스항의 복합운송체계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08년 화물의 58%가 도로운송, 25%가 철도운송이었으나, 향후 몇 년 후에는 도로운송이 33%로 감소하고, 철도운송이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브라질 정부의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과 연계할 예정
  - Brito 항만청 장관은 리우데자네이루항에 이미 책정된 1억 6,950만 달러를 포함한 3억 9,550만 달러를 7개의 항만 시설능력<sup>1)</sup>을 향상시키고 추가로 크루즈 선석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
  - 브라질 정부는 현재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10억 달러규모의 준설 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항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1) 산토스(Santos),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포틀레자(Fortaleza), 살바도르(Salvador), 레시프(Recife), 나탈(Natal), 마나우스(Manaus)

- 특히 브라질 최대항만인 산토스항에는 현재 터미널 신규 개설, 준설 및 진입로 확장, 내륙 접근성강화 등의 총 2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며, 향후에는 총 3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12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자료: 산토스 항만공사

자료: DPC, Dredging & Port Construction, 2010.2.2. / CI-Online, 2010.7.20.

남경오 연구원(☎ 02-2105-2929, reinhard79@kmi.re.kr)



## □ 아르헨티나 산타페(Santa Fe) 내륙 항만, 현대화 개발 8월 입찰 예정

### ○ Santa Fe항 개요

-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파라나강을 따라 약 480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지점에 살라도강과 파라나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내륙항만(inland seaport)이며, 아르헨티나의 화물 뿐 아니라 인근 내륙국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의 화물 처리



### ○ 항만현대화 프로젝트 입찰 계획

- 산타페 주 정부에서는 산타페 내륙항만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입찰 계획을 발표
- 8월 24일 입찰 조건을 발표할 예정이며, 관심 기업들은 9월 30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에서 기술제안(technical bid)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그 이후 기업에서 재무제안(financial bid)를 제출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 Coinre에서 실시한 사전 투자 검토에서 총투자규모는 약 1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관 공동투자로 진행될 예정임
- FONPLATA<sup>2)</sup>에서 약 2,500만 달러, 산타페 주 정부에서 약 1,500만 달러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 : <http://www.bnamericas.com>, <http://www.puertosfe.com>

송주미 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2) FONTPLATA : 1977년에 사전투자 조사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미지역의 금융기구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회원국임

## □ APL Logistics, Sumitomo Warehouse와 전략적 제휴

- 올해 7월, APL Logistics<sup>3)</sup>와 일본 Sumitomo Warehouse<sup>4)</sup>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Supply Chain 서비스 시작
- APL Logistics는 스미토모 고객들에게 자사의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스미토모 창고는 창고와 그 이외 기타 물류기능을 일본의 APL Logistics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물류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즉, 두 회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제공 가능
  - 특히, APL Logistics의 경우 물류기반이 주로 미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이번 제휴를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창고 역시 APL Logistics과의 제휴를 통해 미주와 유럽에서의 물류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서로에게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 물류서비스

<b>APL Logistics</b>	스미토모 고객들에게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주문, M&A, 부가서비스, 화물운송서비스, 항공포워딩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b>Sumitomo Warehouse</b>	일본에서 APL 로지스틱스 고객들에게 콘솔, 창고(보관), 분류, 화물운송 및 관리, 부가서비스 등 제공

자료 : ALP Logistics (<http://www.apllogistics.com/>), Sumitomo Warehouse (<http://www.sumitomo-soko.co.jp>)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mailto:jinjoo@kmi.re.kr))

3) APL Logistics는 모기업인 독일 해운사인 NOL 그룹의 계열사로 육상운송, 창고관리, 복합운송, SCM 구축 등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작년(2009년) 영업이익은 976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함. 작년 영업 감소로 인해 북미지역 7개의 APL 사무실 중 하나인 잭슨빌 사무소를 '09년 12월 말 폐쇄함. APL Logistics는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유럽(영국), 아시아(중국), 아프리카 등 약 110개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4) 스미토모 창고 주식회사는 1899년 설립되었으며 일본 도쿄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로 창고, 항만운송, 국제복합운송, 항공화물운송,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음. 작년(2009) 영업이익은 1,216억 19백만엔이었으며, 해외진출지역으로는 미국, 유럽(독일),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중국(상해, 홍콩, 심천, 청도) 등이 있음

## □ 중국정부 서부지역 철도증설에 1조 5천억위안 투자

- 철도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서부지역 철도건설 투자액은 3,026억 위안으로 철도투자 총액의 40%에 달함
  - 건설된 주요 철도는 칭장(靑藏)철도, 위화이(渝怀)철도, 닝시(宁西)철도, 주류우(株六)복선, 보우란(宝兰)복선, 란우(兰武)복선, 쥘위(遂渝)철도, 광다(广大)철도, 시캉(西康)철도, 난장(南疆)철도, 보우청(宝成)철도 복선 등임
  - 이 기간 동안 서부지역의 철도노선은 2만km에서 3만km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중국 철도노선의 36%를 차지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도 서부대개발 사업 중 6,822억 위안을 투자하여 23개 핵심사업을 새로 착공할 계획임
  - 이 중 철도 건설사업은 5개 사업으로 후궈(沪昆) 노선의 창사(长沙)~궈밍 구간, 청두~궈이양 노선의 러산(乐山)~궈이양 구간, 시안~청두 노선의 시안~장유우(江油) 구간에 대한 신규 건설과 보우지(宝鸡)~란저우(兰州) 선로, 청두~충칭선로 등의 확장 공사임
- 중국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 5천억위안을 투자하여 서부지역 철도노선을 2만km 추가 연장할 계획임
  - 현재 기획 및 건설 중인 서부철도는 총 1.3만km로서 상하이(上海)~궈밍(昆明), 시안(西安)~청두(成都), 하다푸(哈达铺)~청두, 충칭(重庆)~궈이양(贵阳), 청두~궈이양, 궈밍~난닝(南宁) 여객철도 등임
  - 2020년까지 중국 철도노선은 12만 km로, 이중 서부지역은 약 5만km이상으로 중국 철도노선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中國大物流网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